

현안 분석

포스트 PC 시대, 도래할 것인가?

문제 제기

- 최근 포스트 PC 시대의 도래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음
 - PC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PC엑스포 2000, 컴텍스 2000에서 신개념 인터넷 단말기들이 대거 전시되고 무선 연계 기술도 폭넓게 제시되었음
 - 이로써 포스트 PC가 현재 데스크톱 PC가 차지하고 있는 개인용 종합정보기기 시장의 주도적 위치를 대신할 것이라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

<포스트 PC의 개념 및 주요 제품>

| | |
|-------|---|
| 개념 | 네트워크 기능을 강조한 신 개념의 이동형(mobile) 개인용 정보 통신 기기를 말함 |
| 주요 제품 | 개인휴대단말기(PDA), 무선 인터넷 단말기, 미니 노트북, 팜 PC, PDA, 스마트폰, 셋톱박스, 웹패드 등 |
| 최근 동향 | 이동통신이 발전한 '미디어스크린'(노키아社)과 PC계가 발전한 차세대 인터넷 PC인 '태블릿 PC'(MS社)와 '터치패드'(게이트웨이社) 등이 주목을 받고 있음 |

PC 시대 vs 포스트 PC 시대

- 미래 정보 통신 기기로서의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음
 - PC의 한계를 주장하는 입장은 무선 인터넷이 시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동성과 간편성이 단점인 PC는 많은 효용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임
 - 반면 반대 입장은 포스트 PC가 이용의 편리성, 신속성, 저렴한 기기 비용 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대용량 저장, 초고속 및 접속 안정성 등에서 한계가 있으며, 연

산, 문서 편집, 대용량 응용 소프트웨어의 활용, 디자인 및 그래픽 등 PC가 갖는 고유한 용도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함

- 포스트 PC가 PC의 위치를 대체하느냐, 아니면 PC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그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진행되고 있음

· 포스트 PC 시대가 도래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포스트 PC가 단순히 이동통신, 인터넷 접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기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PC 기능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함

· 반면 반대 진영은 향후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기기로서 PC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, 포스트 PC는 이동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함

- 기술 진화 방향의 주도권 및 시장 선점을 두고 기존의 PC 시장 주도 업체와 새로운 업체들간에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

· 마이크로소프트社 등 PC 업체는 PC를 기본 정보 기기로서 자리매김하되, 이동성을 필요로 하는 포스트 PC 분야에는 '포켓 PC', '태블릿 PC' 등의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

· 반면 포스트 PC 진영은 무선 웹 검색이 가능한 PDA, 인터넷 휴대전화 등 '초소형 무선 인터넷 단말기'를 통해 PC로부터 주도권 이양을 시도

<포스트 PC를 둘러싼 논쟁>

| | PC 진영 | 포스트 PC 진영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래 기기로서의 적합성 | 대용량 정보처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PC가 핵심기기로 존재 | PC는 무선 인터넷 시대라는 흐름에 적합하지 않음 |
| 대체성 여부 | 포스트 PC는 이동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에 머무름 | 포스트 PC가 정보처리기능을 수행하여 PC를 대체할 것임 |

포스트 PC 시대 도래의 결정 조건

- 포스트 PC의 강점을 어느만큼 빨리, 어느정도의 완성도로 확보하느냐가 핵심 관건임
 - 포스트 PC는 기기의 소형화와 무선 연계 기술을 기반으로 휴대성, 편리성을 가지며,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
 - 반면 포스트 PC는 정보 및 콘텐츠의 대용량 저장, 초고속 통신 및 접속 안정성, 모니터 및 자판 이용의 편리함 등의 면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음
 - 포스트 PC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기능상의 한계를 극복하여 얼마나 빨리 PC 만큼의 기능을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음

- 시장에서의 대중성을 얼마만큼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함
 - 기술적 완성도가 충분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은 자신이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하길 원하는 경향이 강한데, 이러한 측면에서 PC에 비해 크게 뒤짐
 - 또한 이동형 개인용 정보 기기로서의 포스트 PC가 관련 기술 개발 업체나 유통, 금융과 같은 서비스 업종 이외에 일반 제조업체나 사무관리 업무에 얼마만큼의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함
 - 대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도 중요함

향후 전망

- PC와 포스트 PC는 서로가 강점을 갖는 영역에서 특화하여 보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 - 포스트 PC 제품은 이동성, 간편성을 선호하는 시장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PC 수요를 일부 대체하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
- 그러나 PC 수요를 대대적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것임
 - 이는 포스트 PC가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정보 처리라는 PC의 용도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임
 - 따라서 포스트 PC는 이동성과 간편함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을 주영역으로 하고, PC는 대용량 정보 처리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임
- 포스트 PC가 PC와 양립하는데 이르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
- 우선 모바일 솔루션, 애플리케이션 기술, 개인용 패키지의 온라인화·무선화 등 기술적인 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남아있어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함
 - 또한 성능 대비 가격 면의 우위 확보,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일반 기업체의 업무상 용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의 개발 등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임
- 포스트 PC 내에서도 PC계와 통신계 간에 상호 경쟁하면서 양립할 것임
- PC계는 기존의 노트북 PC가 갖는 기능상의 이점을 살리면서 인터넷 단말기가 갖는 초소형화, 무선 접속 기능을 부가한 '차세대 소형 인터넷 PC'화로 발전함
 - 반면 통신계는 기존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인터넷 접속, TV, 정보 처리 기능 등을 통합한 '초소형 무선 인터넷 단말기'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
 - 현재는 이동통신이 가전제품의 정보화 등 폭넓은 분야로의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포스트 PC 시장의 주력이 될 것으로 보임

(민주홍 연구위원 jlumin@hri.co.kr ☎ 3669-4015)